

투데이 칼럼

따뜻한 카리스마

“죽음을 눈앞에 두고 더 일했어야 하는데” 하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사람은 모두 다른 이들을 좀 더 배려했다면…….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마음을 써주어야 했는데……. 라고 뒤늦게 후회한다” 어느 탐비가 했던 말로 기억한다.

세계적인 경영컨설턴트 캔 블랜차드는 “우리가 생을 마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타인에 대한 사랑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받은 사랑이다”라고 단언하였다.

현대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그리고 세상을 제법 잘 살아내려면 능력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슴이 따뜻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도 없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과거 권위주의 세상에서는 수직적 구조였지만 현대는 수평적 구조로 변해서 수평적 네트워크 조직이 중심이 된 사회구조다.

비즈니스 현장은 일하는 능력 못지않게 많은 능력이 요구되는데 이중 단연 으뜸인 것은 대인관계 능력이다.

전문적인 능력과 함께 인간적인 매력에 있는 사람의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인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프로젝트가 생성되고 이루어지며 얼마나 신뢰할 만한 네트워크인가에 따라서 성공이 뒤따라온다.

수많은 CEO와 유명인사들의 성공하는 독특한 이미지 요소들의 공통점은 한마디로 ‘따뜻한 카리스마’를 가졌다고 한다.

현대적인 의미의 카리스마에는 피지배자들의 ‘차별적인 신뢰’가 존재



김 양 옥

한국스피치먼저 컨설팅 대표

되어야 한다. 상대방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카리스마는 21세기 사회에서 원활하게 살아가기 위한 필수요소로서 강조된다.

문제는 사람들을 이끌면서도 호감을 얻을 수 있는 카리스마를 어떻게 원활하게 표현하느냐 하는 것이다. 따뜻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을 개방해서 상대를 통제하는 자기 표현력과 뛰어난 공감능력을 통해 상대가 스스로 선택했다고 자부하게 만드는 설득의 기술을 발휘한다. 열등감을 넘어서면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거절도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게 수락하듯 거절하는 묘를 발휘하고 여유롭게 세상을 품는 유머가 있다.

이 모든 것을 잘 해내는 내면에는 비전이 자리잡고 있는데 가장 소중한게 여기는 것이 신뢰다. 또한 우연한 인연마저도 값싸게 이용하지 않고 숨은 보물처럼 다룬다는 결 발 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것이 ‘따뜻한 카리스마’라 할 수 있지 않은가?

서로의 정체성을 파악하고 그 사람의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존중과

인식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성공적인 자기 이미지 설계라고 볼 수 있다. 그래야 성공적인 인생설계와 커리어관리를 이룰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을 매끄럽게 해낼 수 있는 키워드가 바로 ‘따뜻한 카리스마’라고 본다.

따뜻한 카리스마가 무엇인다고 물어보면 보통 ‘짜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서로가 이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다면 세상은 일이 편해지고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 들 것이다.

또한 모든 일이 수월하게 진행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자신의 모습 완성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따뜻한 카리스마’의 중요요소를 정리하면 첫째, 자기 표현력이다.

상대에게 나의 이미지를 제대로 전달할 때 그것이 역으로 상대방을 통제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둘째, 공감능력이다. 공감은 마음을 여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마음을 바로 행하는 것이다. 셋째, 신뢰이다.

신뢰를 얻으려면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설득력이다. 설득의 세가지는 상대방이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설득해야 하는 사람이 담당해야 하며 타이밍이 맞아야 한다.

다섯째, 겸손이다. 상대방을 마음으로 존중하고 이것을 성숙한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이 겸손이다. 대화를 할 때도 상대가 편안하고 격의없는 대화를 주고받는 데도 겸손의 한 방법이다.

여섯째, 거절의 기술이다. 거절할 때 자신의 원칙을 말하고 분명하게 거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일곱번째, 자기극복이다. 열등감을 감추려고 하지 말고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그 모습에서 오히려 자신감이 느껴진다.

여덟 번째 유머이다. 유머는 서로의 마음을 열어주고 경직을 풀어주는 포용력을 높인다. 자연스럽게 유머와 위트를 구사하는 사람에게는 풍유와 야량, 관대함과 여유를 느낄 수 있다.

아홉째 인연이다. 성공하려면 인연의 끈을 중요하게 해야 한다. 내가 먼저 가꾸어 주려는 마음이 중요하다.

열 번째, 비전이다. 이것은 개인은 물론 기업, 국가가 존재하는 가치이자 행이다. 그러므로 세상을 현명하고 지혜롭게 살아보기 위해 따뜻한 카리스마의 요소를 되새기며 이미지 관리를 잘 하자. 현대는 이미지 시대이다.

사설

의혹 커지는 어느 지자체 용도 변경

전북 도내 어느 지자체의 용도 변경을 놓고 의혹이 커지고 있다. 문제가 된 해당 지역은 지난 2017년 도시계획 일환으로 지적재조사를 통해 958㎡의 입야가 지적불부합지로 결정됐다.

지적불부합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돼 있는 토지의 경계, 면적, 위치가 실제 현황과 서로 일치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지적불부합지는 소유자가 없을 경우 국유재산법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 번지를 만들어 국유지로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주소지 입야 대상의 소유자는 전북도로 등재됐다. 뿐만 아니라 해당 입야를 신규 등록이 아닌 기존 도로와 병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입야를 도로로 만들기 위해선 지목변경 과정이 필요하다.

개발행위 심의위원회를 통하는 등 과정을 거쳐 문서로 남기게 돼 있다. 하지만 해당 번지의 민원도 없었고 이런 과정이 담긴 자료조차 남아있지 않다.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준 셈이다.

결국 인근 맹지(盲地)의 가격이 크게 올랐다. 맹지(盲地)라는 말은 토지가 도로에 붙어 있지 않고 다른 토지에 막혀 도로(길)가 없는 토지를 가리킨다. 눈먼 땅 혹은 죽은 땅 등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전 맹지 소유자는 10억 원 이상 시세차익을 내고 토지를 팔아낸 건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도로와 거리가 있는 입야가 도로로 병합되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 이런 과정이 담긴 자료조차 남아있지 않은 점이 문제다.

지자체 관계자도 “지적불부합지는 번지로 만들어 국유지 등록을 해야 했는데 기존 도로에 합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해당 공무원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11 직원들의 투기로 전국에 광풍이 불고 있다.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사법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기대한다.

전주 마을버스 ‘바로운’ 운행

전주 마을버스 ‘바로운’이 3월부터 유료화 됐다. 마을버스 ‘바로운’은 외곽 지역 등 시내버스가 닿지 않는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운행했다.

그동안에는 기존 시내버스와의 환승 시스템 문제로 무료 운행했다.

환승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마을버스 탑승 시 연령에 관계없이 500원의 요금을 부과한다. 또 마을버스를 타고 나가 750원만 내면 시내버스로 환승할 수 있다.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시내버스로 최대 2회까지 환승할 수 있다. 마을버스에서 시내버스로 갈아탈 경우 시내버스 요금(1250원)과의 차액인 750원(성인 기준)만 내면 된다.

환승시간은 마을버스에서 시내버스로 환승 시에는 하차태그 후 40분 이내다.

그리고 시내버스에서 마을버스로 환승 시에는 하차태그 후 90분까지다. 주요 목적지까지 환승을 이용해 부담 없이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운행 지역은 ▲조촌·여의 ▲혁신·만성 ▲금암·인후 ▲평화 ▲동서학 ▲우야 등 6개 방면에 18개 노선으로 총 14대가 운행된다.

마을버스 운영을 시작한 지 4개월 여 만에 약 7만3천여 명, 평균 약 1천여 명이 이용했다. 출퇴근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마을버스 도입은 반가운 소식이다. 이통이 불편했던 외곽 마을 곳곳을 시내와 이어 주기 때문이다.

소음이 적고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하는 친환경 전기버스와 중소형 승합차 가 마을버스로 투입됐다. 카드와 현금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자주 타는 버스 노선은 미리 체크해서 운행 시간과 환승거점, 중간 정류장 등을 알아놓으면 편하게 탑승할 수 있을 것이다.

교통 취약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향상됐다. 친환경 교통수단을 활용한 환경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시민들에게 더 나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독자재언

전화금융사기! 미리알고 예방하자!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이용하여 서민들의 주머니를 노리는 신종 전화금융사기가 기승이다.

전화금융사기의 수법은 날로 발전하고 매우 다양하여 피해사례들이 늘고 있어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고 대처해야 예방할 수 있다.

최근 채권추심팀 직원으로 사칭한 사람을 길거리, 집 앞, 회사 앞에서 직접 만나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는 범죄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수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피해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저금리 대출상품 출시되었다며 문자메세

지를 보내 피해자가 전화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인행을 위해 휴대폰에 자신들이 보내준 ‘앱’을 설치하게 한다.

2. ‘앱’이 설치되면 어떤 전화번호를 누르더라도 보이스피싱 사무실로 연결되며 피해자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휴대전화에 담긴 개인정보를 탈취한다.

3. 신규 대출 진행 중 기존 대출업체를 사칭한 곳에서 “기존 계약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대출을 진행했으므로 이중계약으로 금융사고가 접수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며 피해자를 더금하게 만든 후 해

결을 위해 당일 현금으로 기존의 대출금 상환을 유도한다.

이 외에도 상황에 따라 변형된 수법이 다양하지만 “현금이나 앱 설치 요구, 저금리 대출, 자녀사칭, 편의점 기프트 카드 핀 번호 요구, 가짜 메신지에 첨부된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 등은 100% 전화금융사기라는 점을 잊지말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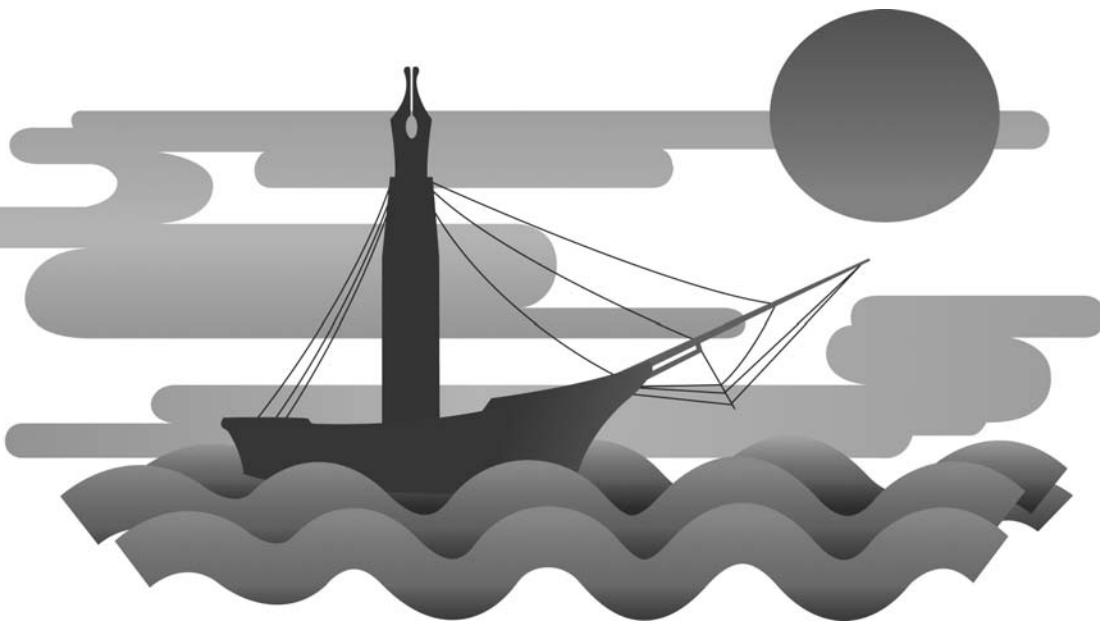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에는 은행(고객센터), 금융감독원(1332), 경찰서(112)에 신속히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현지 무주경찰서 생활안전계순경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송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